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창작은 새 세기 만화영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 속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동영화의 주제는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동영화의 주제로 계급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집단주의교양과 관련한 문제, 공부를 잘하고 조직생활을 잘할데 대한 문제, 로동을 사랑할데 대한 문제, 과학환상문제 같은것을 설정할수 있을것입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4권 333~334페이지)

일반적으로 과학환상문학이란 과학적가설에 기초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환상을 펼쳐는 문학을 말한다.

과학환상문학은 인간의 창조적활동으로 더욱 변모될 미래의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지니도록 하고 인간의 창조적능력, 과학의 신비한 힘을 형상적으로 느끼도록 한다.

과학환상문학에는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아동소설, 과학환상동화, 과학환상영화문학,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이 있다.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창작이 새 세기 만화영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만화영화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과학기술의 미래를 떠메고나가는 후비대, 역군으로 키워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강국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기동감, 재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의 만년토대를 공고히 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아동문학부문앞에는 시대의 요구, 당의 요구에 맞게 어린이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능력과 고상한 도덕품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옳은 학습관점과 학풍을 세워주고 새 지식에 대한 탐구심을 키

워줄수 있는 작품들을 내놓아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과학적인 환상의 나래를 달아주는데서 효과적인것은 바로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이다.

만화영화문학은 과학교육지식과 사상교양, 도덕교양을 주는 여러가지 주제로 만들수 있다.

여기에서 과학적환상에 기초하여 내용을 펴나가는 과학환상만화영화는 그 주제적특성으로부터 과학적문제를 생활적바탕으로 한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에 과학적환상을 주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아이들의 상상력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것이며 호기심과 진취성이 강한 그들은 어서 커서 자기들도 발명가, 과학자가 될 희망을 간직하게 될것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건전한 혁명의식과 풍부한 지식, 높은 창조력, 고상한 도덕품모와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들로 키우자면 어린시절부터 창조적인 사유능력과 기발한 착상능력을 키워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과학환상만화영화를 보면서 환상의 나래를 펼칠 때 그것은 그대로 앞날의 과학자가 될 소중한 꿈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 어떤 과학의 신비세계도 돌파해나갈 배짱을 키우게 한다.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창작이 새 세기 만화영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만화영화가 아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리상을 키워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술형태이며 대중교양수단이기때문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에는 소설, 동화, 우화, 동요, 동시를 비롯한 많은 문학형태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만화영화는 직관예술인것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생동한 인식을 줄수 있으며 아이들의 지적활동의 특성에 알맞는 예술형태로 된다.

만화영화에서는 형태가 있는 대상이나 물체는 물론 형태가 없는 여러가지 자연현상들도 보다 생동하게 직관화하여 그 본질을 잘 표현할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으로 하여 만화영화문학에서는 동화, 우화문학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직관적으로 반영할수 있으며 지적인 내용을 생동하게 인식시킬수 있다.

실례로 체적을 구하는 지식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를 각각 두배로 늘여 8배로 늘인다고 할 때는 이미있던 상자와의 대비속에서 직관적으로 인식시킬수 있다.

이것을 동화문학에 그린다면 아이들은 상자가 커졌다는것은 알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커졌는가 하는 표상은 보다 생동하게 가지지 못할것이다.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은 자연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생활을 현실속에서가 아니라 앞날에 펼쳐질 환상세계를 통하여 펼쳐보임으로써 어린관중들에게 자연의 신비함과 그러한 자연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매력을 안겨주며 그 과정에 발현되는 인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보여준다.

과학환상만화영화 《환상속의 세동무》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나서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번개잡이비행선을 만들어 지상의 탕크에 저장하는 학생과학소조원들의 활동을 펼쳐보이고있다.

번개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학생소년궁전 물리소조원인 용이, 성혁이, 분이의 시점에서 전기를 얻는 실천활동과정, 응용과정으로 펼쳐보인 만화영화는 우주의 정복자, 개척

자가 되려는 아이들의 지능을 계발시켜준다.

만화영화에서는 아이들이 꿈으로만 생각해오는 우주세계, 바다세계와 거기에 전개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기치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척척 조종하는 소조원들의 장한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하늘의 번개를 잡아 나라에 필요한 전기로 리용할 엉뚱한 환상을 가지고 물리 지식과 생물 지식을 기초로 환상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려는 마음, 실지로 자연의 비밀을 밝혀보려는 욕망을 자래우게 된다.

지구성이 부족하고 활동성이 강한 아이들은 소설이나 시문학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화면상에서의 행동을 더 즐겨보게 된다.

실지 생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감수하는것은 소설과 동화, 시로 상상해보는 능력에 비해볼 때 속도나 받아들이는 심도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처럼 만화영화는 아이들의 지적활동의 특성에 맞게 과학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환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하는데서 다른 모든 교양수단들의 형태에 비하여 위력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 《남수의 환상》은 먹을것이 많은 바다에서 이 세상 제일 큰 돼지를 키우려는 남수의 환상을 펼쳐보이고있다.

남수는 과학궁전에서 수많은 자동기계조종단추를 능숙히 다루며 연구하여 로봇트를 만들어낸다.

남수는 철이와 굉장히 큰 《고래돼지》를 만들기 위해 우선 바다에 나가 고래를 찾는다. 남수는 게로보트에게 지령을 주어 고래의 살점을 떼오게 한다. 게로보트가 고래에게 삼키우게 되자 남수는 지령을 주어 로봇트가 고래배속의 살점을 떼내가지고 나오도록 한다.

남수는 게로보트가 떼내온 고래살점을 배양기에 넣고 로봇트-1호에게 돼지에게서 살점을 떼내여 배양기에 합칠것을 명령한다. 자동기계조종단추를 눌러 시동시키자 어느덧 텔레비존화면에는 고래살점세포와 돼지살점세포가 엉켜돌아가며 합쳐지는것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대가리는 돼지모양이고 몸뚱이는 고래형태인 《고래돼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 《하늘의 쇠돌》은 주인공소년이 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다가 떨어져내리는 별찌를 보고 저런것을 많이 모으면 긴장한 철문제를 풀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로케트는 주인공들을 싣고 우주공간을 가로세로 헤가르며 철운석들을 자동적으로 끌어당겨 수집한다.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탐사에서 성공하여 우주에 떠다니는 모든 철운석을 일정한 정류소에 모아놓기까지 한다. 그의 대담한 결심과 행동으로 우주용광로가 건설되게 되고 우주정류소에서 필요한 철운석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쇠물을 녹여 각종 기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작품에 반영된 환상들은 모두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관련된것으로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늘여나가려는 마음과 그것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 욕망을 키워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 《꼬마우주탐사대원》이 그림영화로 제작된데 이어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들인 《꼬마박사》, 《춤추는 풍년벌》, 《곱등어를 길들이는 소년》과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이미 이룩한 성과가 결코 큰것이 아니다.

오늘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창작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어린이들을 과학기술강국의 역군으로 키워야 할 절박하고도 중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창작가들은 과학환상만화영화문학창작이 새 세기 만화영화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환상주제작품창작에서 혁신을 일으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